통권 56호

www.afterschool.go.kr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인재 육성

방과후학교 온라인 Newsletter

2017 1월호

발행인 : 김재춘 | 편집인 : 박승재 | 편집담당 : 정은주

CONTENTS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01 전문가 칼럼
배움과 성장이 있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02 현장 속 방과후학교
3S 공감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상안 방과후학교

03 함께여는 방과후학교
위례신도시 수요자 중심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04 알림
뉴스레터 원고모집

구독 신청 방법

격월 5일에 발간되는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www.afterschool.go.kr)**에서 뉴스레터 구독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독신청 : www.afterschool.go.kr Click !

배움과 성장이 있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서울갈현초등학교 부장교사 | 김 진 형

세렌디피티(Serendipity)란 말이 있다. 이것은 '우연히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능력'이라는 뜻이다. 세렌딥(스리랑카)의 세 왕자에 대한 동화에서 유래했는데, 왕의 명령으로 여행을 떠난 왕자들이 우연히 여러 가지 발견을 하는 모습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발견을 하는 능력이나 행운을 부르는 힘을 표현하기 위한 조어가 되었다고 한다. 본교에서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발견한 것은 바로 세렌디피티의 힘인지도 모른다.

2015년에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이 현장에 적용되고 3~6학년까지 수용 정책이 실시되면서 학교에서는 공간확보와 인력구성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 현장에서는 수업 후의 학생들을 구성하는 것에 아직 준비가 되지 못하였고 돌봄교실은 1~2학년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3~6학년의 학생들을 수용해야 하는 공감대는 부족한 현실이었다. 기존의 운영방안이나 운영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성공사례 등 벤치마킹할 수 있는 사례가 있었을 것이지만, 실용화 단계가 부족한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은 학교현장에서 수많은 과제에 가로막혀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란 느낌으로 현장적용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학교 현장에서 정책의 성공을 성공적인 운영사례가 있느냐 없느냐의 이분법적 구분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맷 리들리(Matt Ridley)의 '이타적 유전자'(신좌섭 옮김 사이언스북스)에 따르면 유전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아이의 장기와 뇌를 만들라는 명령을 내리지만 태어난 뒤에는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자기 개조를 거듭한다고 한다. 이처럼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에 진화가 가능하다면 실제로 정책은 환경이나 경험을 통해 크게 바뀌어 사회에 공헌하거나 놀라운 업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실패는 겪지 않을 것이다.

본교에서는 초기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여 2015년은 인내의 시기였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야 했다. 더러는 불필요한 일이라며 푸념하는 시선과 1500명의 학생중 극소수 비율의 학생이 이용한다는 나름 구체적인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삶은 숫자로 비교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며 학교에서 학생과 관련된 일 중에 불필요한 일은 없다는 발상의 전환과 인내의 시기 뒤에 찾아온 2016년 개선의 시기에 정책의 현장 적용률을 크게 향상시킬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 흔히 2대 8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불평의 원인 20퍼센트를 해결하면 전체 불평의 80퍼센트를 억제할 수 있다. 과정의 20퍼센트의 집중이 결과의 80퍼센트를 차지한다는 식이다. 2015년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중요한 순서대로 10개의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그 중 상위 2개 항목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첫째,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별도의 공간을 구성한다.

둘째,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구심점을 찾는다.

학교내 환경에는 다양한 이용공간이 있지만 물리적인 한계점으로 하나의 교실이 2개 이상의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효율을 추구하도록 강요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새로운 시도나 과정을 도입하는 경험을 쌓지 못하며, 이미 예측 가능한 운영상의 문제를 파악하는 정도로 이용되기 쉽다. 또한 심리적인 한계점으로 과거 학생들이 학교에서 놀이를 통해 성장의 과정을 거치며 별다른 프로그램이 없어도 모이며 이야기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겪어왔다. 그러나 지금의 학생들이나 학교의 운영 주체는 학생들이 방과후에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고민할 여유가 없다.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이야말로 물리적, 심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참여학생,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도할 인력구성이다.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며 빠지기 쉬운 함정은 '필요한 구성요소'와 '채워야할 구성요소'를 구별하는 것이다. '필요한 구성요소'는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물리적 공간, 참여학생, 운영 주체이다. 물리적 구성요소 해결은 학교마다 큰 차이점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채워야할 구성요소'의 하나인 심리적인 구성요소는 본교에서 3~6학년 학생들이 소속감을 갖도록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동아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예산이 없어서, 운영인력이 없어서'란 제한조건은 본교에서 자신이 가진 열정을 나누는 선생님들과 외부 단체의 교육기부 프로그램 덕분에 운영초기 방향성 설정과 필요한 예산 지원으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2016년 연계형 돌봄교실을 통해 5개의 동아리와 4개의 특별프로그램 그리고 6번의 전국단위 대회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다.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 정책이 시행된지 2년, 정책을 적용하는데 선배 선생님이 해주시던 말이 큰 힘이 되었다. "실험에 실패는 없다.", "생각만 하지 말고 일단 시도해 봐!"

학교에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과 인력 지원을 토대로 좋은 연구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나 그것보다 학교 환경을 살피고 학생들을 보아야 한다. 때로는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으며 구체적인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예산이 있고 환경적인 구성이 아무리 좋아도 학생이 없으면 정책의 성과는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곳은 우리 학교야', '난 우리 학교가 좋아'라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면 어떤 정책이든 좋은 연구 성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위학교에서는 이점을 참고하였으면 한다.

학생들이 정규수업후 학교에 남는 것은 학교에서는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한다.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지,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등 이런 문제를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과 목소리를 내는 과정이라면, 자신의 의지를 갖고 성장할 수 있는 시점이라면 그 과정에서 학교는 아이들이 꿈꾸는 곳이 될 것이다. 무엇을 가르치지 않아도 배울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리고 아이들의 힘으로 도약할 때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 충분히 아이들은 스스로 성장하고 배우는 것을 올해 볼 수 있었다. 방과후에 아이들이 남는 것은 학교의 리스크가 아니라 미래의 희망으로 보았으면 한다.

과거 학생 때로 돌아가 학교 선생님의 책상 한켠에 놓인 연구 목적의 교사용 문제집들이 생각난다. 마땅한 학원 하나 없는 동네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와 전해진 문제집 한권은 내가 교직에서 이제는 아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선물상자가 아니었나 한다. 학교에서 전하는 작은 씨앗이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되길 바라며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은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해결책이며 발상의 전환이 되며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성공체험을 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생소한 펌프를 처음 쓰기 위해서는 물 한 그릇을 먼저 부어야 하듯 지금 학생들에게는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이 21세기 학교에서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

3S 공감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상안 방과후학교

울산 상안초등학교 교사 | 배 경 숙

상안초등학교는 울산 북구의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도심에서 벗어나 주변의 문화시설과 교육시설이 부족하여 지역 시설만으로는 다양한 학습요구를 수용하기에 미흡하다. 학부모의 90% 이상이 지속적인 교과 및 예체능 교육을 받기를 원하여 방과후에도 아이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면서 안전하고 다양한 수준 높은 활동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며 자신감을 함양하도록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3S 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S 공감 프로그램이란 안전하고 즐거운 방과후 교육활동의 SAFE, 지덕체 도야 공감교육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의 SMART, 바른인성 내면화를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의 SMILE 활동으로 인성과 글로벌 역량을 함께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SAFE 방과후교육활동

운영여건 구축, 안전운영 매뉴얼 제작, 학부모서포터즈 운영

방과후 수강아동들의 안전한 하교를 위해 교과와 특기적성 프로그램의 운영시간을 통일하여 운영하고, 일관되고 신속한 방과후학교 문의사항을 전담할 수 있는 상설 콜센터 운영 및 위기대응과 사고대처 역량 강화를 위해 방과후 안전운영 매뉴얼을 별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및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성폭력, 따돌림 등의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강사 안전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학부모들로 구성된 방과후학교 학부모서포터즈를 조직하여 안전한 하교지도 외에도 홍보전시회 협조, 학부모 공개수업에 참관하고 협의를 통해 방과후학교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안전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 SAFE

SMART 방과후교육활동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대회수상 및 자격증 취득, 상안글로벌스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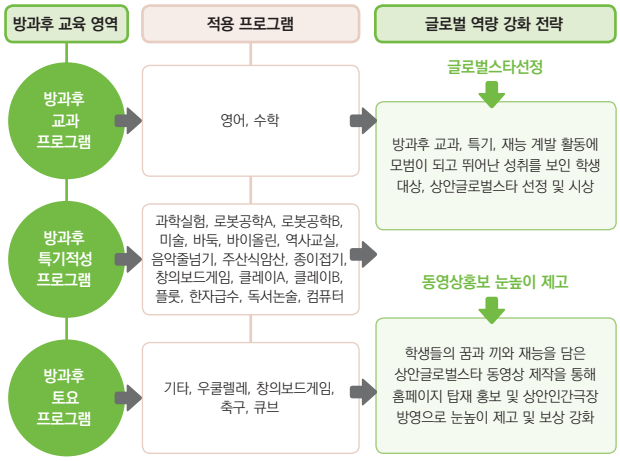
교육격차 해소 및 학력 신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별 맞춤식 교과프로그램과 소질 및 적성을 계발하고 취미와 특기를 신장시킬 수 있는 교육기회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기적성프로그램의 73개 강좌를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꾸준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잠재된 재능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면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2016년 현재 각종 대회 및 자격증 시험, 체험수기 공모 등에서 총 179명이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들 중 각 영역별로 열심히 땀 흘려 배우고 노력하면서 특기와 소질을 계발하여 뛰어난 성취도를 보인 학생들에게 보람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글로벌 역량을 함양하여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글로벌스타를 선발하여 시상하였다. 수상한 학생의 사례를 일반화하기 위한 영상을 제작 및 방송하고 있다.

글로벌스타 영상 제작의 활용은 방과후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참여하지 않은 다른 친구들에게는 자기 계발에 대한 동기부여와 의욕을 고취시켜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지덕체 도야 공감교육을 위한 방과후교육활동 ➔ SMART

SMILE 방과후교육활동

선플 프로그램, 보드미방 운영, 상안오케스트라 운영, 지역 문화축제 참여

방과후교육활동에 대한 긍정의 마인드와 공감대를 조성하면서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의 선플 환경을 조성하여 알차고 즐거운 방과후 학습활동의 성과를 높여나가는 동시에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격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요즘은 가족 형태의 다양한 변화로 방과후 보육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돌봄교실인 행복한 '보드미방'을 운영하여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였다. 학년 특성을 고려한 반편성 및 다양한 독서, 지성, 교구활동 뿐 아니라 특성화된 방과후 특강을 상설 운영하여 학교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 자녀의 배움과 돌봄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방과후 바이올린과 플룻을 배우는 아동들로 이루어진 상안초등학교 오케스트라를 비롯하여 음악줄넘기팀, 기타 연주팀, 글로벌스타들은 울산의 대표적인 문화 축제인 '울산쇠부리축제'행사에 참가한다.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숨은 끼를 발산하고 축제 분위기를 한껏 돋우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상안방과후학교의 목표와 부합되는 의미 있는 공연을 펼쳤다. 특히 상안오케스트라는 지역문화축제 외에도 교내의 입학식, 졸업식, 등굣길 음악회, 교육성과발표회 등 각종 행사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활동 과정을 통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등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 등굣길 작은 음악회는 학교를 통하여 문화 예술을 경험하고 학교를 감성소통 공간으로 만들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생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바른인성 내면화를 위한 방과후교육활동 ➔ SMILE

글로벌 역량 강화의 시작은 3S 공감 프로그램과 함께...

3S 공감 프로그램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SAFE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는 안전의식 내면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하고 바람직한 부모상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SMART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는 특기와 재능 계발,

보람과 자긍심 고취의 기회 제공, 사교육비 경감 및 자기계발의 동기부여를 통해 글로벌 역량 함양에 기여,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잠재된 재능의 조기발견 기회 등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SMILE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는 올바른 언어사용으로 학교폭력예방에 기여, 배려와 돌봄, 나눔을 실천하며 아이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내면화에 기여, 학생,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도록 하였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 가고 있는 상안 방과후학교.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은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한다. "방과후학교를 통해 자신감과 꿈을 얻고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아이들을 본다고..."

위례신도시 수요자 중심의 초등돌봄교실 운영

서울송례초등학교 돌봄전담사 | 조 상 진

'힘은 키우고 마음은 채우며 꿈을 펼치자.'라는 교훈으로 학생들의 꿈과 행복, 미래를 향하는 좋은 교육을 실천하는 서울송례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소개하고자 한다.

위례신도시의 형성과 함께 2014년 3월 1일에 개교한 서울송례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전용교실 1실과 겸용교실 4실로 총 5실이다. 현재 참여 학생은 1~3학년까지 총 89명이 이용하고 있다. 신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상 지역조성이 늦어져 거의 모든 활동들이 방과 후 학교의 프로그램과 돌봄교실 이용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여러 지역에서 모인 지역주민들이다 보니 사소한 일도 학교에 건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주일에 한번 협의회를 통해 학생들의 여러 상황을 공유하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돌봄교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다 보니 민원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돌봄전담사들간의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 학부모의 관심이 많은 신도시에 위치한 학교에서는 필히 있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서울송례초등학교 돌봄교실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 등 수요자 맞춤형 돌봄교실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돌봄교실 운영 방향

가. 수요자 요구와 학교 여건에 맞게 1~3학년의 저소득층·한부모·맞벌이 가정 자녀 등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생활을 돕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있다.

나.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수요자 맞춤형 돌봄교실을 제공한다.

다. 학생들에게 보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학습과제 수행이나 공동체 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당한 휴식과 레크리에이션을 마련하여 정서적·사회적 발달과 함께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는데 있다.

세부 운영 현황

(인원수 : 2016. 12. 1 기준)

운영 유형	운영 시간	장소	대상	인원 (명)	비용 부담	돌봄 전담사	비고
아침 돌봄	7:30 ~9:00	전용 교실(1)	전교생 희망자 전원	15 ~20	무료	아침 돌봄	
오전 돌봄	8:00 ~12:30	전용 교실(1) 겸용 교실(2)	오후, 저녁돌봄 이용학생	68	중식 수익자 부담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 무료)	대체 인력 1명 시간제 2명	겨울 방학 기준
오후 돌봄	방과후 ~17:00	전용 교실(1) 겸용 교실(4)	1~2학년 중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89	간식 수익자 부담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 무료)	전일제 1명 시간제 4명	증빙 서류 확인
저녁 돌봄	17:00 ~20:00	전용 교실(1)	오후돌봄 학생 중 저녁돌봄 희망자	10	석식 수익자 부담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 무료)	전일제 1명	

프로그램 운영

가. 돌봄교실 프로그램은 기본생활습관지도, 과제 수행 등 개인활동과 놀이, 특기적성 중심의 단체활동으로 구성한다.

나. 연간 운영계획 및 주간교육계획안,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계획성 있게 지도한다.

1) 각 반 돌봄전담사는 돌봄교실 운영 관련 서류(일일운영일지, 출석 및 귀가일지, 학생개인별 관리 카드 등)를 비치하고 관리한다.

2)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주간활동을 사전에 예고하거나 공개하는 등 내실 있는 돌봄교실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예시 >10월 4주 꽃초롱 돌봄교실 주간교육계획안

생활주제	가을				기간	2016.10.24.(월) ~2016.10.28.(금)
소주제	가을 풍경 즐기기					
목 표	아름다운 가을 풍경을 느끼고 즐긴다.					
기본생활습관	(예절) 음식을 골고루 먹어요.					
요일 / 시간(오후)	활동	월(10/24)	화(10/25)	수(10/26)	목(10/27)	금(10/28)
방과후~1:00	생활지도	알림장 확인, 가방정리, 기본생활습관지도				
1:00~2:00	과제지도	숙제지도 및 받아쓰기 연습 등				
2:00~3:00	주제활동	도서관	미술	과학실험	펄러비즈	실외활동
		자유롭게 책읽기	가을풍경 코스모스 잠자리걸이	변신하는 꽃 카드	해바라기 가을나무	계절의 변화를 느껴요.
3:00~3:20	간식및휴식	햄에그 샌드위치 아이키커 (사과주스)	떠먹는 요구르트 인포켓치즈 밤만쥬	갈릭데니쉬 돌파인애플 주스	바나나 쁘띠첼포도 요거트 하루견과	호박시루떡 유기농 포도주스 감귤
	열량(kcal)	345	220	345	249	358
3:20~3:40	개별학습	숙제지도 및 개별활동				
3:40~4:30	개별활동	자유선택활동(보드게임, 사방치기, 독서 등)				
4:30~5:00	시청각자료	구구단송 따라 부르기 및 학습만화 시청				
5:00~5:40	자유선택활동	종이접기, 보드게임, 독서 등 / 1차 귀가지도				
5:40~7:00	석식및휴식	저녁 식사 및 양치 지도 / 2차 귀가지도				
7:00~8:00	개별활동	개별활동(일기쓰기 등) 및 EBS 시청/ 3차 귀가지도, 정리정돈				

다. 교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특기를 신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개별적으로 외부 사설업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귀가조치로 간주한다.

라. 지역사회 인적자원(학부모 명예교사, 동행대학생 등) 및 시설·기관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권장한다.

마.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추후 계획에 반영(상·하반기)한다.

바. 초등돌봄교실 민원담당관제를 운영하여 학생·학부모 불편을 해소한다.

프로그램운영 주요 활동사진

손 씻기

쓰레기 분리수거

안전생활 규칙

미술 - 협동화(가을)

과학실험

펄러비즈

신체활동 - 게임

석식시간

자유선택활동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

학생 활동지 모음

연간교육계획안 외 운영서류

기대효과

가. 방과 후 부모의 부재로 인해 혼자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갖던 아동이 돌봄교실에 참여함으로써 정서적, 신체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었다.

나. 가정환경 및 학업 수준이 서로 비슷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통해 원만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에 임하게 되었다.

다. 돌봄교실에서 관심을 받고 서로 간 신뢰가 형성되다 보니 지금까지 위축되어 있던 자세에서 벗어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학습태도를 갖게 되었다.

라. 수요자 맞춤형 돌봄교실 운영으로 민원발생을 줄이고 학부모님의 관심과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가. 매년 연초(2월말경)에 예산이 교부되어야 3월부터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없으며, 예산의 범위도 돌봄교실 수에 따라 다르게 교부되어야 한다.

나.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의 기회와 원격교육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강화되고 보급되어야 한다.

다. 전담사의 휴가(병가)에 대비하여 교육(지원)청별 대체인력을 10명 이상 확보 및 학교차원의 대체인력풀을 사전 구축 및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겠다.

알림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 3월호 원고 모집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에서는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의 정책, 운영현황, 성과, 우수사례, 행사안내 등에 관한 정보공유와 방과후학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를 2014년 7월부터 매월 웹진형식으로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보다 다양하게 다루고자 **뉴스레터에 수록될 원고를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원고 제출 기간은 **2017년 2월 10일(금)까지**이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모집 대상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기관 종사자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유관 기관 전문가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학계전문가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참여 학생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참여 학생을 둔 학부모

방과후학교 뉴스레터는 발신 전용입니다.
본 메일을 앞으로 수신하지 않으실 분은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해당 이메일을 입력하여 주십시오.

※ 집필자의 원고 내용은 센터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립니다.

2 모집 분야

	항목	내용
1	전문가칼럼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관계자(전문가) 칼럼
2	현장 속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관련 유관기관 소개, 운영현황, 우수사례 등
3	함께여는 방과후학교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방과후학교(초등돌봄) 이용후기
4	방과후학교 소식	지역별 방과후학교(초등돌봄) 행사 및 연수 안내

3 배포 대상

- 교육부 • 17개 시·도 교육청 • 원고 집필자
- 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 신청자 (교사, 강사, 학부모, 학생 등)

4 제출 방법

- 원고 투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원고투고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방과후학교 포털시스템(www.afterschool.go.kr) 정보마당-자료실-'방과후학교 온라인 뉴스레터 원고 투고 신청서 양식' 참조

5 제출처 및 연락처

-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정은주 연구원(ej912@kedi.re.kr/02-3460-0686)

6 기타

- 제출된 원고는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된 원고는 투고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 소정의 원고료 지급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06764)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921호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02-3460-0686
copyright© 2015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